

열린의정, 정책의정, 바른의정

201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

- 미국(USA) · 캐나다(Canada) -
2019. 9. 16. ~ 9. 22. (5박 7일)



영등포구의회

I. 출장개요	3
1. 출장일정 및 출장내용	3
2. 세부일정	4
II. 추진경과	5
III. 공식일정 및 기관방문 출장내용	7
1. 하이라인 파크(High Line Park)	7
2. 알츠하이머협회 뉴욕지부	9
3. 토론토 시청(신·구청사)	17
4. YMCA 유아보육기관(Child Care at the YMCA)	18
IV. 주제별 출장내용	20
1. 도시재생 우수사례 탐방	20
(1) 첼시마켓(Chelsea Market)	
(2)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Distillery District)	
2. 현지 행정·문화·관광 우수사례 탐방	23
(1) 센트럴파크(Central Park)	
(2) 프리덤타워(One World Trade Center) & 911메모리얼 파크	
(3) 퀸 빅토리아파크 생태공원(Queen Victoria Park)	
(4) 토론토 대학, 온타리오주 의사당	
(University of Toronto, Legislative Assembly of Ontario)	
3. 기타 및 연구사례	29
V. 총평 및 제언사항	32

201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

선진국의 도시재생 우수 사례와 복지 등 관련 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여러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우리 구의 적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견문을 넓혀 심도 있는 정책 연구 자료와 지표로 활용하고자 함.

I 출장개요

□ 출장일정

- 기 간: 2019. 9. 16.(월) ~ 9. 22.(일) / 5박 7일
- 방문지역: 미국(뉴욕), 캐나다(토론토)
- 인 원: 6명(의원 4명, 수행직원 2명)

□ 출장내용

- 도시재생 우수사례 방문 및 시찰, 현지 자료 수집
 -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추진 과정, 주민 협의 도출 등 우수사례 수집
 - 친환경 요소 등 도시 재생 시 선진국에서 중점으로 두는 가치 파악
 - 구도심의 폐쇄된 철도 및 건축물 활용 사례 벤치마킹
- 알츠하이머 관련 단체 운영 실태 및 현지 인프라 구축 현황 파악
 - 알츠하이머협회 뉴욕지부 기관 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선진국의 알츠하이머 질병에 대한 지원책 등 인프라와 단체 활동 등 파악
- 주민 친화적인 공공청사의 활용방안 모색 및 현황 분석
 -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공공청사 토론토 시청 방문 및 시찰을 통해
공공청사의 활용도와 주민쉼터나 지역 랜드마크 등 다양한 역할가능성 모색
- 유아 보육기관 방문 및 현지 보육정책 등 연구
 - 캐나다 대표 보육기관인 YMCA Child Care 센터 방문을 통해 선진국
보육 환경과 육아 및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 적극 모색
- 기타 현지 문화 탐방 및 다양한 우수사례 등 견학

□ 세부일정

일자	국가명 (도시명)	시간	주요일정
9/16(월)	인천 뉴욕	10:00 11:05(현지)	- 인천 국제공항 출발(KE081편) - 뉴욕 JFK공항 도착(14시간 5분 소요)
9/16(월)	뉴욕 (맨하튼)	14:00 16:00	- 첼시마켓 - [공식일정] 하이라인파크
9/17(화)	뉴욕 (맨하튼)	10:00 14:00 16:00	- 센트럴파크 - 프리덤타워, 911메모리얼파크 - 월스트리트 등 지역문화 탐방
9/18(수)	뉴욕 버팔로 나이아가라	10:00 16:10 17:45 20:00	- [기관방문] 알츠하이머협회 뉴욕지부 - 뉴욕 JFK공항 출발(B62402편) - 버팔로 공항 도착(1시간 30분 소요) - 나이아가라 지역 도착
9/19(목)	나이아가라 토론토	10:00 16:00 19:00	- 쿤 빅토리아파크 생태공원 시찰 - 토론토로 이동 - 토론토 도착
9/20(금)	토론토	09:00 12:00 14:00 16:00	- [공식일정] 토론토 시청 - 토론토 대학, 온타리오주 의사당 -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 [공식일정] Child Care At the YMCA
9/21(토)	토론토 인천	12:40 15:00	- 토론토공항 출발(KE077편) - 인천 국제공항 도착(13시간 20분 소요)

☐ **출장자 명단 (의원4명, 직원2명)**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장	박미영	
	사회건설부위원장	이규선	
	의 원	유승용	
	의 원	최봉희	
구의회사무국	홍 보 팀 장	이일호	의전 및 수행 총괄
	주 무 관	김지섭	사진촬영, 의전

II 추진경과

☐ **출장주제 및 국가 선정(의장단 회의) 7.14.**

- 도시재생사업 우수 사례: 하이 라인 파크, 첼시 마켓,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 복지관련 기관 방문 및 시찰: 알츠하이머협회 뉴욕 지부, YMCA 유아보육기관
- 선진 도시 시청 견학 및 공공청사 우수 사례: 토론토 시청
- 행정·문화·관광 우수사례: 센트럴파크, 프리덤타워&911 메모리얼 파크,
퀸 빅토리아파크 생태공원, 토론토 대학 온타리오주 의사당

☐ **공무 국외출장 관련 사전 준비**

- 사전준비팀 구성
 - 구성인원: 6명(의원 4명, 직원 2명)
 - 팀 구성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의정팀장, 최영호 주무관
 - 준비기간: 10일
 - 준비내용: 방문기관 선정, 출장일정, 공무 국외출장 심사 준비 등

☐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개최 8.2.**

○ 일시: 2019. 8. 2.(금) 10:30~12:00

○ 장소: 제1소회의실

○ 출석인원: 심사위원 9명

○ 심사내용

- 방문국가 및 출장 필요성, 방문기관 적합성

- 기간 및 경비의 타당성·적정성

○ 심사위원의 주요 질문 및 토의내용

- 도시재생사업의 우수 사례 및 선진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하게끔 당부

- 선진국 복지정책 현황 등을 소상히 시찰하여 우리 구에 적극 적용 당부

- 방문 기관은 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적절히 선정한 것으로 보이며,
공식 일정을 통해 정책 추진과 지역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심사결과: 적합(9명 전원)

☐ **공무 국외출장 업체 사전 설명회 9.2.**

○ 추진과정 및 출장에 따른 사전 준비사항 설명

○ 기관 및 시설 방문선정 등 세부 일정 설명 및 토의

☐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실시 9.16~9.22.**

☐ **공무 국외출장 강평 및 결과보고회 10.7.**

1 하이 라인 파크(High Line Park)

○ 방문일시: 2019. 9. 16.(월) 16:00~18:00

○ 주요내용

- 폐허가 된 고가철도를 공원화 시킨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우수 사례.
- 비영리단체 ‘하이 라인의 친구들(The Friends of High Line)’이 철거 직전의 고가철도를 독특한 조망권을 앞세워 공원화했다.
- 2004년 공모를 통해 디자인을 결정했으며, 3단계로 나누어 공사가 시행됐다. 1-2단계 구간은 미트패킹~첼시 지역 건물을 관통하는 구간이며, 3단계 구간은 허드슨 야드와 맞물린 30-34번가 구간이다.
- 모든 구간 공사가 2014년 9월 완공됐으나, 틈틈이 수리와 시설보수 공사가 곳곳에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 주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이자 쉼터로 탈바꿈하여 곳곳에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가 상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여유’와 ‘사색’으로 대표되는 공원 테마가 하나의 문화로 어우러져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 하이 라인 파크 개발 사업은 1만2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경제적 효과 역시 20억 달러(2조원 수준)로 알려져 있다.(뉴욕시 발표)
- 최근 서울시의 폐 고가도로를 공원화시킨 ‘서울로2017’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 관련사진



▲하이 라인 파크 내 구 철도레일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습



▲서울로2017의 모델이 된
주민 친화적인 휴식공간



▲많은 주민들이 하이 라인 파크를 찾고 있는 모습



▲육교형 진입 층계

▲먹거리 등 매대 운영이 활발하다.



▲하이 라인 파크에서 바라본 시가지 전경

▲공식일정 기념 촬영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하이 라인 파크는 폐쇄직전 고가철도를 도시재생하려는 시도와 아이디어가 굉장히 돋보인 사례이며, 고가철도의 독특한 조망권과 디자인 등 공모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립한 점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한 점 등이 주요 성공 요인으로 보인다.
- 영등포는 도심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고가도로와 국철을 비롯한 철길 등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최근 안전상의 이유로 노후화된 고가도로를 점차 폐쇄 및 철거하는 추세이고, 타 교통수단으로 대체됨에 따라 폐철노선이 늘어나면서 구(舊) 철길의 철거 역시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다.
- 하이 라인 파크는 이와 같은 폐 고가도로 및 구 철길 등에 대한 훌륭한 해답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미 2017년 서울시에서 “서울로2017”를 통해 성공사례를 제시한 바가 있고, 우리 구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도림동~문래동 일대, 영등포역 일대 등의 여러 고가도로와 구 철길을 비롯하여 얼핏 봐서는 활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공간을, 쉼터가 부족한 영등포에 주민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방문을 통해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나아가 버스킹, 예술작품 전시, 플래시몹 공연 등이 이루어지는 21세기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영등포가 구도심으로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도약을 앞두고 있는 바,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화두인 만큼, 선진국의 선례와 사례를 체득하여 차후 정책 마련과 사업 확보에 있어 다양한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일상에 지친 주민들의 아름답고 행복한 쉼터가 영등포의 곳곳에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방문일시: 2019. 9. 18.(수) 10:00~13:00

○ 면 담 자: Mrs. Chelsea (알츠하이머협회 뉴욕지부 홍보단장) 외 2인

○ 주요내용

- 알츠하이머협회는 알츠하이머 치료, 지원 및 연구 분야의 선도적이고 자발적인 가장 큰 비영리 보건 단체로, 뉴욕 지부는 1980년도 설립 되었다.
- 알츠하이머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지원하며, 뇌 건강 증진을 통한 치매 발병률을 줄이도록 연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지부와 관련 공동체를 보유하고 있는 매우 큰 단체이다.
- 알츠하이머협회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단체 중 2010년에 설치된 AIM(Alzheimer Impact Movement)이 있으며, 역시 비영리 회원 조직이다.
- 알츠하이머 협회에서는 알츠하이머를 국가적 의제로 접근하게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 관련사진



▲알츠하이머협회 뉴욕지부 관계자 간담회 및 기관방문 기념촬영

발의자	내용
박미영 의원	금일 기관방문을 통해 알츠하이머 협회 뉴욕지부 관계자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서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며 영등포구의 복지 발전과 알츠하이머협회 뉴욕 지부 기관의 발전을 비롯해 양 기관 상호 간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질문> 이렇게 어려운 일을 국가가 아닌 비영리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정부 재정 지원이 기부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기를 바라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답변: Mrs. Chelsea> 물론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본 협회에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알츠하이머 지원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이다. 최근에는 65세 이전에 치매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료보험과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65세 이후의 치매환자들만 가능했던 부분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알츠하이머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 누구나가 본 협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질문> 24시간 핫라인 전화에서 200개 언어가 지원된다고 하니 상당히 훌륭한 서비스라고 생각된다. 지금 협회(뉴욕 지부)의 직원들과 활동 인원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들이 자원봉사인지 급여를 받고 있는지 운영 방법이 궁금하다. <답변: Mrs. Elizabeth>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원으로 고용된 사람들이며, 직원 외에도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로 지원하여 협회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인원들이 대다수이다. 자원봉사자 중에도 보수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사무실 근무를 희망하는 인원도 많다.

발의자	내용
유승용 의원	<질문> 지금 본부는 시카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계적인 운영 방안이나 현황을 알고 싶고, 알츠하이머 기구 중심으로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정부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Mrs. Chelsea> 알츠하이머협회 본부는 시카고 헤드코너에 있고 지역마다 그 지역을 관리하는 이사가 있다. 본부는 시카고지만, 본부에서 직접적인 프로그램 방법이나 체계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다. 지역마다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과 연구가 다르므로, 뉴욕은 뉴욕지부에서 주도적이고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본부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24시간 핫라인 전화와 같은 시설을 제공하는데, 지부들은 거기서 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을 선정해 알아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부의 직원 수나 예산 규모까지는 뉴욕 지부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받는 기금은 금액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기부 등 다른 채널에 비해 규모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대부분 모금 사업이나 홍보이벤트 등을 통해 기부 받는 금액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규선 의원	<질문> 알츠하이머협회 뉴욕 지부는 치매 연구에 가장 지출을 많이 하는 비영리단체인 걸로 알고 있다. 연구 중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연구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답변: Mrs. Elizabeth> 말한 대로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는 것이 리서치(research)인데, 완치보다는 질병의 진행 및 경과를 늦추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가장 효과가 있었던 리서치를 예로 든다면, 예전에는 알츠하이머가 유전적이라는 견해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생활환경이나 습관으로도 충분히 유전적인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운영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발의자	내용
	아울러 ‘리서치 컨퍼런스(research conference)’라는 연구 이벤트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7월 L.A.에서 개최했으며, 내년에는 네덜란드에서 개최 예정이다. ‘리서치 컨퍼런스’에서는 전 세계 의사들이 참가해 알츠하이머 연구 자료나 성과를 서로 비교하고 공유하며 꾸준히 완치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 뉴욕시 내에서도 뉴욕 주립대, 콜롬비아 대학 등과 연계하여 펀딩을 통해 뉴욕 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며,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훈련법을 적용하는 치료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질문> 알츠하이머협회 뉴욕 지부에서 현재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역점사업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 Mrs. Chelsea> 제일 중점을 두고 하는 프로그램은 비단 환자 본인 치료에 국한된 것이 아닌, 환자 가족과 환자 본인 및 간병인까지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보는 ‘커뮤니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환자 개인에 초점을 맞추면 환자의 치료, 입원에서 끝나게 되지만, 커뮤니티를 교육하게 되면 알츠하이머 환자의 간병과 치료, 교육과 관련해 가지를 뻗어 여러 가지 새로운 논의로 논지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커뮤니티가 늘어날수록 시민들의 알츠하이머 질병에 대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늘어날 것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 중 반응과 효과가 좋았던 것이 ‘댄스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도 ‘사진 촬영’, ‘외국어’, ‘작문’, ‘도자기 제작’ 등 손이나 몸을 적극적으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언어의 장벽이 없어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며, 추천한다.
최봉희 의원	<질문> 그렇다면 다른 지부와 차별화된 뉴욕 지부만의 추진 사업 등 특색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발의자	내용
	<답변: Mrs. Chelsea> 뉴욕의 개성이자 가장 특이한 점은 ‘다문화사회’라는 것이다. 그리고 뉴욕 중 특히 맨하튼에 이민자 등 유색인종이 제일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뉴욕 지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24시간 핫라인’과는 별개로, 다른 지부에 비해 굉장히 많은 언어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뉴욕 내 특정 국가 커뮤니티(지역 사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언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서 불편 없이 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뉴욕 지부만의 굉장한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질문> 시민들에게 알츠하이머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자발적인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 Mrs. Elizabeth> 막연히 알고 있는 것과 자신의 주변에 협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은 큰 차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알츠하이머협회 뉴욕지부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과,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항상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홍보를 더욱 늘려갈 것이다. 또한 시민들과 대면 접촉하여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학교, 경로당, 지역센터, 기관, 협회 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현재도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홍보 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학교장이나 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유대관계를 맺으며 유기적인 소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역 신문과 관공서의 기관지 등 지면 홍보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교육 시 다른 사람들을 트레이닝 하는 방법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함께 교육하고 있다.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는 지역 커뮤니티 등 본인이 속한 그룹에서 자연스럽게 홍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알츠하이머 협회 뉴욕 지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질병인 알츠하이머에 대한 접근 방향 및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사회를 향해 빠른 속도로 진입해가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 될수록 알츠하이머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질병이다.
- 작년 우리나라 만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75만 명으로 추정되며¹⁾²⁾, 특히 영등포의 경우는 60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가 4,969명, 그 중 65세 이상 치매 추정 환자가 4,527명³⁾으로 안전지대가 아닌 실정이다.
- 뉴욕 맨하튼은 특히 대표적인 ‘다문화사회’고, 영등포 역시 중국동포 및 조선족 거주 비율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다문화사회’이므로, 공통된 성격이 많아 협회의 활동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선진국인 미국에서 가장 큰 알츠하이머 관련 기관인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제가 되게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 치매 환자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지,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등은 충분히 우리 구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들이라고 생각된다.

3 토론토 시청 [산구청사]

○ 방문일시: 2019. 9. 20.(금) 09:00~12:00

○ 주요내용

- 토론토 시청 구청사는 에드워드 제임스 제눅스가 설계를 맡아 1899년 완공되었으며,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 신청사는 토론토의 상징으로 1965년 완공되었으며, 핀란드 건축가 빌리오 레벨이 설계를 맡았다.
- 신청사는 현대적 감각의 건축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층·27층으로 각각 높이가 다른 두 개의 아치형 건물과 가운데 돔 모양의 건물로 이루어져 거대한 눈을 연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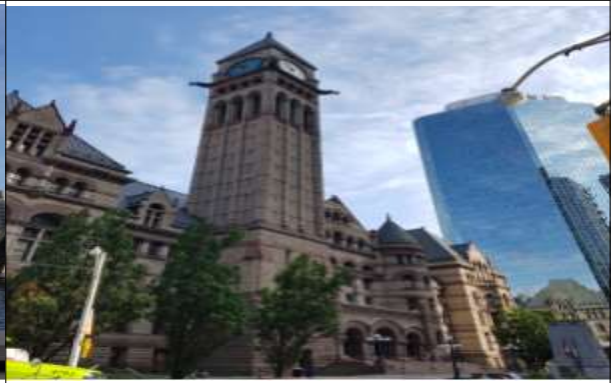
1) 중앙치매센터 통계자료(2018)

2) 치매 환자의 경우 질병 특성상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므로, 모집단의 표본조사에 따른 추정치로 통계를 확정한다.

3) 보건복지부 통계자료(2018,2019)

- 시청의 앞마당 격인 ‘네이션 필립스 스퀘어(Nathan Philips Square)’에는 커다란 분수가 있어 여름엔 주민들의 휴식 공간, 겨울엔 무료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여름 기간 수요일에는 파머스마켓(08:00~14:00), 11월 말~12월에는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는 공간이다.

○ 관련사진



▲토론토 시청(신청사, 구청사) 외관 및 네이션 필립스 스퀘어 전경



▲토론토 시청 내부시설 시찰

▲공식일정 방문 기념촬영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토론토 시청 청사는 토론토의 랜드마크이다. 시청 청사가 관공서이자 공공건축물이기도 하지만, 여행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훌륭한 관광 명소이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잠깐의 쉼터이자 휴식 공간의 역할을 모두 겸하고 있다.
- 구 청사의 오랜 역사와 고풍스러운 외관, 신청사의 전통적인 관공서 개념에서 벗어나 심미성을 만족시킨 독특한 디자인, 청사 앞 주민 친화적인 ‘광장’의 존재 등이 시청 청사를 랜드마크로 이끈 요인으로 보인다.
- 공공건축물 그 자체로도 훌륭한 관광자원이자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차후 영등포의 청사 역시 정형화 된 기존 개념의 건축물에서 탈피하고 최근 트렌드에 걸맞는 다채로움과 다양함을 가지고 있는 주민친화적인 새로운

공간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특히, 시청 앞에서 시기별로 진행되는 ‘파머스 마켓’,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과 같은 청사 특징과 지역 특성에 맞는 이벤트가 공공청사의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YMCA 유아교육기관 (Child Care at the YMCA)

○ 방문일시: 2019. 9. 20.(금) 14:00~16:00

○ 주요내용

- 캐나다 최대의 비영리 보육 기관으로, 토론토 지역 전체에서 50년 경험과 290개가 넘는 면허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전문 유아교육 기관이다.
- 영유아 및 유아, 미취학 아동, 취학 연령 아동을 위한 고품질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별 프로그램 세분화가 잘 되어 있다.
- 고도로 훈련된 강사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며,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자녀가 안전하고 육성되는 환경에 있는 지를 상시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다.

○ 관련사진



▲공식일정 기념촬영(좌), 아이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우)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우리나라는 최근 경기 불황과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2018년 합계출산율⁴⁾ 0.98을 기록하는 등⁵⁾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으나, 아이를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는’ 환경 및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보육기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YMCA 유아교육기관의 아동 연령에 따른 다양하고 세분화 된 맞춤형 프로그램은 특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벤치마킹으로 관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접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영등포의 출산율을 높이고 선진화된 보육 인프라 마련을 위해서는 눈앞의 가시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플랜에 초점을 맞춰 선진국의 인프라 등을 충분히 검토해 안심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도시 영등포’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IV 주제별 출장내용

1 도시재생 우수사례 견학

□ 첼시마켓(Chelsea Market)

○ 방문일시: 2019. 9. 16.(월) 14:00 ~ 15:00

○ 주요내용

- ‘첼시’지역은 뉴욕 내에서 낡고 오래된 건물이 많은 지역이다.
- 첼시마켓은 15-16스트리트 사이 예전 쿠키공장 자리를 도시재생하여 재탄생한 공간으로서, 초창기에는 대형식품 매장으로 조성되었다.
- 내부는 큰 규모의 상가지역으로, 빵집, 식료품 가게, 찻집, 식당, 기념품샵, 소품샵 등 규모가 크고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하다.
- 특히 예전 쿠키공장으로 쓰던 건물을 재활용하여 뉴욕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찾는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하였다는 데에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도시재생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한 명 당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함.

5) 통계청 발표 자료(2019)

○ 관련사진



▲내부, 과거 쿠키공장 건물을 그대로 살린 모습



▲다양한 종류의 상점들이 입점해 있는 모습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폐 쿠키공장의 오래된 건물을 그대로 사용해 독특한 분위기를 내는 내부 인테리어와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첼시마켓 만의 식품 등을 시그니처화 시킨 것이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큰 요인이다.
- 도시 재생은 단지 건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만의 독특한 개성과 요소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영등포에서는 과거 공장지대였던 양평동, 문래동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며, 차후 해당 지역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우수 사례이다.

□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Distillery District)

○ 방문일시: 2019. 9. 20.(금) 14:00~16:00

○ 주요내용

- 1832년부터 운영되던 ‘대영제국’ 최대규모 양조장이 들어서있던 지구이다.
- 2003년부터 양조장 운영이 종료되면서 옛건물을 그대로 살리며 내부 부분 리모델링을 실시해 공방, 갤러리, 카페, 레스토랑 등으로 탈바꿈하였으며 보행자 역사지구로 재탄생했다.

- 곳곳에서 예전 양조장 건물 및 시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조화를 고려한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 매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토론토의 명소가 되었으며, 영화 및 뮤지컬 “시카고”의 배경으로 유명하다.

○ 관련사진



▲양조장 컨테이너가 건물 외벽에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



▲건물 내부 과거 양조장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음



▲과거 양조장 건물 및 굴뚝(좌), 양조장 건물을 그대로 사용 해 위에 주상복합 주택 건설(우)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양조장 지구의 오래된 건물들과 시설들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해 거리 자체의 고풍스럽고 독특한 분위기를 살렸으며, 내부 역시 실제로 사용하던 기구까지 보존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 특히 과거 건물을 그대로 사용해 고층부에 주택을 건축한 주상복합 건물을

볼 수 있어 도시재생의 “조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보존과 조화, 활용과 창조”라는 키워드에 걸맞는 거리를 통해 도시재생의 새로운 관점을 시사하고 있다.

2 현지 행정·문화·관광 우수사례 탐방

□ 센트럴파크(Central Park)

○ 방문일시: 2019. 9. 17.(화) 10:00~12:00

○ 주요내용

- 남북 길이 4.1km, 동서 길이 0.83km의 긴 직사각형 형태로, 면적이 3.41km²에 달하는 매우 큰 규모의 공원이다.
- 1800년대 중반 맨하튼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프랑스 파리의 ‘불로뉴숲’, 영국 런던의 ‘하이드파크’ 등을 모델로 하여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550만 달러를 투입해 1853년 공원 부지를 확보하였다.
- 1857년 현재 보다는 작은 약3.145km² 면적으로 초기 개장하고 공원의 경관 설계를 공모했으며, 1858년 조경가 프레더릭 로 옴스테드 및 건축가 칼버트 복수가 공동 제안한 「그린스워드 플랜」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 이후 설계안에 따라 경관 조성 및 확장을 시작해 1876년에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 1963년 미국 역사기념물로 지정되었고, 1966년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었다.
- 연간 4,000만 명이 찾는 세계적 관광명소라고 볼 수 있다.

○ 관련사진



▲▲센트럴파크 전경



▲센트럴파크는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쉼터이다.
주민들이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



▲관광객들을 위한 자전거택시(Pedicab), 마차

□ 프리덤타워 & 911 추모공원 (Freedom Tower & 911 Memorial Park)

○ 방문일시: 2019. 9. 17.(화) 14:00 ~ 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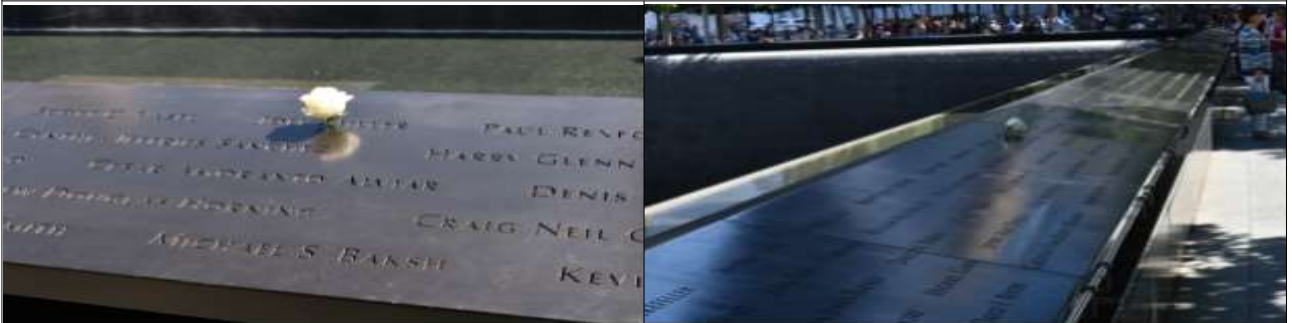
○ 주요내용

- 2001년 9월 11일 항공기 납치 및 자살테러로 세계무역센터(WTC) 110층짜리 쌍둥이빌딩이 무너지고 90여개국 3,500여명(추정)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다(미국대폭발테러사건, 911 참사).
- 이후 재건축이 추진되어 주건물인 원월드트레이드센터가 2014년 11월 개장하였으며,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자리에 911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추모공원이 조성되었다.
- 원월드트레이드센터는 원래 ‘프리덤 타워’로 명명되었지만 나머지 건물들과 호칭 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원월드트레이드센터’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 원월드트레이드센터는 지상 104층, 지하 5층 규모에 연면적은 32만 5,279㎡에 달하며, 총 높이는 1,776피트(541m)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되었다. 참고로 1,776은 미국 독립선언 연도이다.
- 추모공원인 ‘911 메모리얼 파크’는 인공폭포를 중심으로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긴 비석이 있어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비석 위에 놓인 조화 등을 자주 볼 수 있다.

○ 관련사진



▲프리덤 타워(좌) 및 911 메모리얼 파크(우) 전경



▲인공폭포 앞 비석에는 희생자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으며, 조화가 놓여져있는 풍경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프리덤타워에 올라가면 뉴욕 맨하튼의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 **퀸 빅토리아파크 생태공원**

○ 방문일시: 2019. 9. 19.(목) 10:00~13:00

○ 주요내용

- 캐나다 쪽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르는 말굽폭포에서 클립턴 언덕까지 이어지는 큰 규모의 생태공원으로, 캐나다 지역은 물론 세계 곳곳의 여러가지 나무와 꽃들을 심어놓아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철마다 색깔이 달라지는 것으로 유명한 생태공원이다.

- 식물마다 명칭과 설명이 적힌 꽃말을 달아 방문객들의 편의를 고려했으며, 바위 정원과 장미의 일종인 하이브리드 티(Hybrid Tea) 정원, 양탄자 무늬로 꾸민 꽃밭이 유명하다.
- 여름에는 금요일 밤마다 불꽃놀이가 진행되며, 평상시에도 야간 조명이 아름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근처 주민에게도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인기가 높다.

○ 관련사진



▲생태공원 내 꽃과 나무들이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



▲퀸 빅토리아 공원 전경

▲공원에서 보이는 나이아가라 폭포

□ 토론토 대학 · 온타리오주 의사당

○ 방문일시: 2019. 9. 20.(금) 12:00~14:00

○ 주요내용

- 토론토대학은 약 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캐나다 최대의 대학으로, ‘퀸즈파크’ 서쪽으로 넓게 위치해있으며 대학 건물이 다운타운에 자리한 것이 특이점이다.
- 토론토대학 건물은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 등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이

어우러져 있는 형태이다.

- 온타리오주 1893년에 지어진 100년이 넘는 유서 깊은 의사당이며, 현재도 의회 건물로 사용 중으로 의회가 열리면 관광객도 사전 신청 시 방청할 수 있다.
-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이며, 내부는 천연 대리석과 마호가니 자재를 아낌없이 사용한 무척 화려한 건축물이다.

○ 관련사진



▲토론토 대학 캠퍼스 전경



▲온타리오주 의사당 전경



▲의사당 앞에서는
시위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3 기타 및 연구 사례 (우수사례 등)

○ 거리의 쓰레기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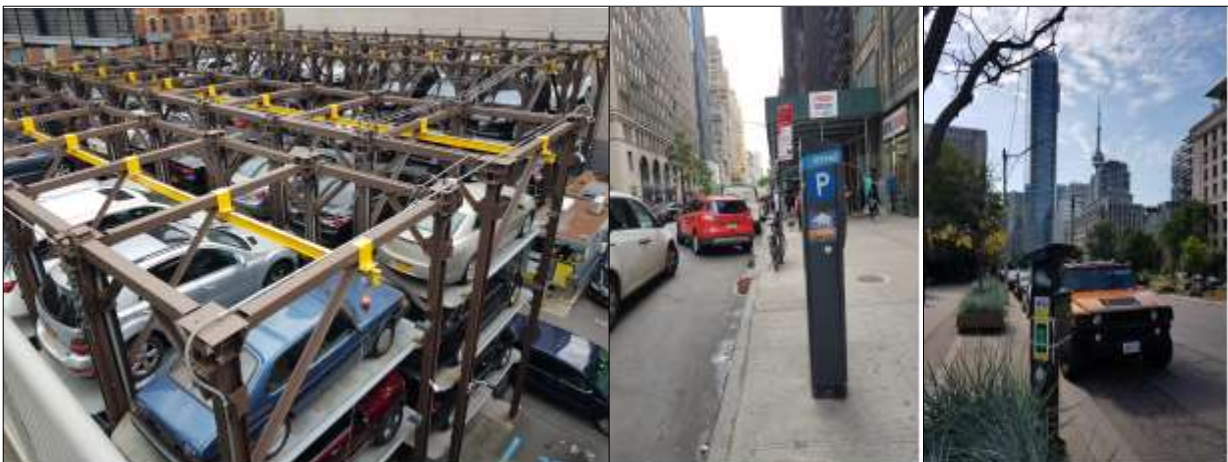
- 미국, 캐나다 양국 모두 거리 곳곳에서 흔하게 쓰레기통을 찾아볼 수 있음.
- 쓰레기통 설치 개소 및 수량이 많아 거리에 쓰레기가 넘치는 것을 보기 힘들.
- 깨끗한 거리 환경 및 청결도 향상에 쓰레기통 설치 숫자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쓰레기통의 디자인 역시 심미성을 고려한 독특한 디자인이 많아, 거리 미관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거리의 쓰레기통들(대부분 종류별 분리배출)

○ 거리 주차(시간제 주차), 대형 주차타워

- 뉴욕 맨하튼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차량이 많은 것에 비해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함.
- 대형 주차타워가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뉴욕, 토론토 모두 거리 주차(시간제 주차)가 활성화 되어있음.



▲대형 주차타워

▲시간제 주차

○ 보도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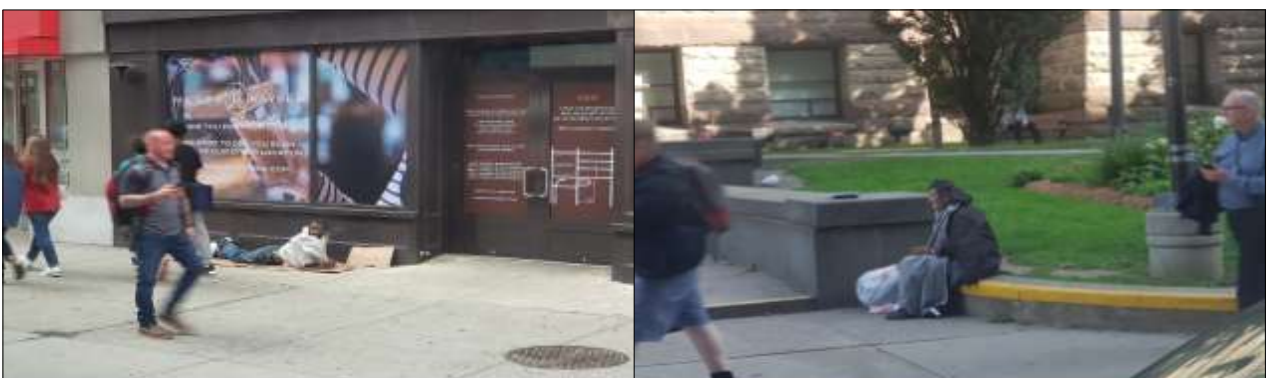
- 뉴욕, 토론토 모두 서울이나 우리나라와 달리 보도블록이 조밀하게 밀집되어 있는 형태가 아닌 대부분 넓은 판형을 취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나 영등포와 달리 보도폭이 도로에 비해 많이 좁지 않고, 상당히 넓게 조성되어 보행이 편한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
- 보행환경 조성에 있어 미관과 실용성 모두를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보도 모습

○ 노숙인 문제

- 거리 곳곳에서 보이는 노숙인들은 노숙인 문제가 비단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이미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음.
- 미국, 캐나다 양국 모두 선진국임에 틀림없으나,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의 가속화로 인해 노숙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영등포도 영등포역 주변 등 노숙인 문제로 많은 민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노숙인 시설 설립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차후 전 세계적으로 노숙인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님비현상 극복 사례

- 한국에서는 기피시설인 공동묘지가 뉴욕에서는 도심 및 주민 거주지 안에 자연스럽게 함께 조성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음.
- 공동묘지를 공원화하여, 추모공간과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는 휴식 및 산책할 수 있는 훌륭한 쉼터가 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공동묘지를 단시간에 혐오시설에서 기호시설로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해당 사례는 님비현상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음.



▲도심 및 주민거주지역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동묘지.
공원화하여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훌륭한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

□ 공무 국외출장의 목적, 사전준비

영등포구는 1970년대까지 김포공항에서 강남구의 일부까지 포함했던 명실상부 서남권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낙후되고 혼잡한 이미지로 남아 어느 곳보다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다. 최근 영등포는 구도심으로서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향해 날개를 달아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영등포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 선진국의 법·제도 등 선진 행정만이 아니라 도시재생 우수사례, 어르신 복지, 보육 복지, 공공청사 분야, 문화 우수사례 등 여러 부분을 심도 있고 다각도에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정책 연구와 추진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본 국외출장을 기획했다.

방문 국가는 도시재생, 복지, 공공청사 분야가 특히 잘되어 있는 미국과 캐나다 2개국으로 선정했으며, 5박 7일간의 일정동안 공식일정과 기관방문, 현장시찰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체득하고자 했다.

특히 폐 고가철도를 그대로 살려 주민들이 사랑하는 휴식공간으로 만든 ‘하이라인 파크’ 외에도 쿠키공장을 그대로 활용한 ‘첼시 마켓’, 양조장 지구를 되살린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등과 같은 사례를 심도 있게 살펴 도시재생의 비전과 과정상의 고려 요소 등을 연구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 보존과 조화, 고유의 향기를 현재로, ‘도시재생’

미국과 캐나다 도시재생의 특징은 건물이 그 자체로 역사를 담을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를 최대한 살리는 점, 또 그 안에서 ‘조화’를 최대의 가치로 삼는다는 점,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관심을 최대한 이끌어내려고 노력한 점, 아울러 비단 건물만을 그대로 활용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발길을 끌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점들이 영등포의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도시재생의 미래의 성공적인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영등포도 공장지대였던 문래동과 양평동 일대 등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단기적 사업에 대한 초점을 장기적인 플랜으로 옮기고,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상생과 조화를 이루는 ‘숨쉬는 도시재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옛 준공업지역을 예술거리, 공연장, 특색있는 상가(소품샵, 펍, 옷가게) 등 유니크한 문화특구로 지정하고, 오랜 기간 구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100년, 200년 후에는 영등포 방문객들이 가지 않으면 이상할 역사와 전통을 지닌 스토리가 있는 지역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제안해본다.

□ 선진국을 통해 바라본 복지의 미래

그동안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조례안을 제정하여 어르신 복지 및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왔다. 특히 미국 뉴욕 맨하튼은 대표적인 다문화사회로, 영등포와 공통점이 많아 우리구에 적용할 여지가 많았다. 또한 캐나다의 보육 환경 역시 안정되고 체계적인 보육 인프라 구축이야말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우리구도 선진국의 다양한 복지사례들을 바탕으로 복지도시 영등포, 살기 좋은 영등포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공공청사는 멈춰있는 과거가 아니다

캐나다 토론토 시청은 토론토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빠지지 않는 곳이며, 지역 주민에게도 사랑받는 미래지향적인 공공청사의 우수한 모델이다. 어째서 시청청사가 비단 주민만이 아닌 관광객들에게도 매력을 끄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더 이상 공공청사가 예전의 관공서 개념으로 딱딱하고 재미없는, 방문자에게 위압감만을 안겨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공공청사는 관광 스토리텔링이 가장 필요한 분야이다. 영등포의 공공청사들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건축한다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철거할 필요성 없이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주변 환경과 지역 특성까지 고려하여 짓는다면 더욱 각광을 받으며 오랜 세월 주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으로 남을 것이다.

□ 맺으며...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 결과 역시 선진국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깨끗한 거리, 블록마다 설치된 쓰레기통, 봄비는 곳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모습, 남을 먼저 배려하는 시민 의식 등등.....

이 외에도 일상에서 우연히 본 풍경들이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많은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현지 교민이나 주민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닐까 한다.

다음 국외출장 기획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여 더욱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장시간 이동과 시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고 배우는 자세로 질문과 토론에 적극 참여해주신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미국

국명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위치	아메리카 대륙 북부
면적	9,372,610 km ² (농지 47%, 산지 29% / 한반도의 약 42배, 남한의 95배)
기후	남부 플로리다의 아열대, 하와이의 열대, 북부 알래스카의 한대
수도	워싱턴 D.C.
인구	319,471,495명 (추정치)
주요도시	New York, Los Angeles, Chicago, Houston, Philadelphia, Phoenix, San Antonio 등
민족	백인(77.7%), 흑인(13.2%), 아메리카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1.2%), 아시아인(5.3%), 하와이 원주민/기타 태평양 섬주민(0.2%), 히스패닉(17.1%)
언어	영어(일부 지역은 스페인어도 통용)
종교	기독교/카톨릭(78.3%), 유대교(1.8%), 불교(1.2%), 이슬람(0.9%), 힌두교(0.6%), 토착신앙(0.2%), 기타(0.6%), 무교(16.4%)
건국일	1776. 7. 4 (13개 주 독립선언일)
정부형태	대통령제
국가원수 (실권자)	○ Donald Trump 대통령(취임일: 2017. 1. 20.)

□ 캐나다

국명	캐나다(Canada) 
위치	아메리카 대륙 북부
면적	약 998만 km ² (단일 국가 면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넓음)
기후	광대한 국토로 인해 여러 기후 산재. 벤쿠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지역은 해류의 영향으로 따뜻함. 중앙지역은 대륙성 기후로 한랭 건조함. 동부지역은 한류의 영향으로 추운 날씨임.
수도	오타와 (온타리오 주)
인구	3,430만명
주요도시	Toronto, Montreal, Vancouver, Ottawa, Calgary, Edmonton 등
민족	영국계(35%), 불란서계(26%), 독일계(4%), 이태리계(3%), 원주민(2%), 중국계(3%) 등
언어	영어, 불어
종교	카톨릭(47%), 개신교(41%), 동방 정교(3%), 기타(9%) 등
건국일	1867. 7. 1.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의원 내각제, 연방제, 다당제, 양원제 (상원 104석 / 하원 295석) 형식상 수반은 영국 여왕, 행정 수반은 총리
국가원수 (실권자)	○ 국가원수: 영국여왕 Elizabeth II(1952년 2월 6일 즉위) 총리: Justin Trudeau(실권자 / 2015년 11월 4일 취임)